

■ 안철수, 박원순 지원 효과는?

중도·부동층 '쌍끌이' 투표율 높인다

막판 젊은 층 투표 참여 유도 '격차 벌리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선거 지원에 나선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의 지원이 박 후보에게서 이탈한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일정 부분 되돌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박 후보가 투표를 제고를 막판 선거전의 최대 승부처로 여기는 상황에서 상대적 강제인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뭐라고 해도 안 원장의 지원은 결국 박원순 후보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피해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판세가 박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범야권과 박 후보 측은 안 원장의 지지가 결국 서울시장 선거전의 승리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안 원장의 공식 지지의사 표명에 대해 "부동층의 투표를 독려해 승세를 확실히 굳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 평화, 인권 세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안 원장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 우상호 대변인은 "최근 박 후보가 미미한 반등세를 타면서 약간 앞서있는 상태였고 본다"며 "안 원장의 지원은 이런 격차를 벌리면서 선거전 막판 상대방이 제기하는 어떤 변수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 측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원순 후보는 후보 결정에서 선거 막바지까지 남에게 매달려 선거를 치르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판세가 불리해지자 손을 내미는 협찬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안철수 원장을 겨냥해서도 "국립대 교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다"며 "만약 정치를 하려면 사표를 내고 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렸다. 여론조사기관인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안 원장의 지지 선언으로 협찬 공세 등으로 이탈했던 부동층과 숨은 표가 막판 박 후보에게 결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말뉴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박원순 후보의 선거캠프를 방문, 박 후보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 재보선 5곳도 '후끈'

민주 지역구 '수상'에 민노·무소속 후보 '표심잡기' 안간힘

10·2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남지역 5개 재·보궐선거 지역 후보들이 마지막 표심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지역구 '수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지방의회의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를 내세우며 총력을 펼치고 있다.

24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에서 실시되는 재·보선 지역은 장성군 제2선거구와 함평군 제1선거구 등 2곳과 장성군 나 선거구, 화순군 나 선거구, 무안군 가 선거구 등 기초의원(군의원) 3곳으로 모두 5곳이다.

장성 제2선거구(황용·진원·남면·동화·삼계·삼서면) 도의원 재선거에는 이준호(민·42) 후보와 한승철(민노·45), 박광진(무·48), 임강환(무·48)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와 민주노동당 후보들 간 조직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도의원과 군의원들이 대거 나서 이 후보의 측면 지원을 하고 있고, 민노당은 감기갑 의원이 한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함평 제1선거구(함평·손불·신광·합동·삼계·삼서면) 도의원 재선거에는 정현수(민·48), 김창훈(무·58), 김천희(무·55), 김천식(무·69), 옥부호(무·49) 후보 등 모두 5명이 나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험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은 정현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이낙연 도당위원장, 이윤석 의원 등이 대거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며 정 후보에 대한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함평 제1선거구의 경우 아직까지 부동층이 15%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표 직전까지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곳의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장성군 나 선거구와 무안군 가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1대결이 펼쳐지면서 백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성군 나 선거구에서는 천승욱(59·민) 후보와 김희식(49·무) 후보가, 무안군 가 선거구에서는 이병호(49·민)·정찬수(58·무) 후보가 각각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화순 나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양정승(46) 후보와 무소속 안호걸(46)·이광현(33)·송영희(33) 후보 등 4명이 막판 표심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풍'이나 '선거의 여왕'이나

서울시장 보선 대선 전초전 양상 급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일전을 벌이는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내년 총선과 대선 판도까지 뒤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표는 공교롭게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32주년이 되는 26일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 가도의 명암이 갈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대역전승을 거두면 '박근혜 대세론'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 후보가 패배한다면 소위 '박근혜 대세론'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정치

권 안팎에서 '한계론'이 제기되면서 여러 내부의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야권 박원순 후보가 승리할 경우, 안 원장은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구축할 전망이다. 안 원장이 지원 선언이 박 후보의 승리를 이끈 '결정적 모멘텀'으로 평가받으며 안풍(안철수 바람)의 위력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 원장이 10·26 재보궐선거 이후, 야권대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치 개혁의 흐름을 주도한다면 범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로 간 '10만 희망 릴레이'

근로정신대 돕기 모금운동 국회서 열려

근로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해 펼쳐지는 모금 운동인 '10만 희망 릴레이'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한국교회와 동북아평화연구회'(대표 유선호 국회의원)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 김희용),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이사장 이팔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99엔 문제 해결과 미쓰비에 해당하는 1인당 1000원씩의 투쟁 자금을 마련하는 운동이다.'

지난 21일 현재 약 9만 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희호 여사 내일 광주 온다

'김대중 대통령 추모문화제' 참석... 27일엔 'DJ노벨평화영화상' 시상

김대중 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이 김대중 대통령 추모문화제와 광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24일 김대중 평화센터에 따르면 이사장은 오는 26일 오후 6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사)행동하는 양심 광우협의회(회장 정진백) 주관으로 개최되는 '김대중 대통령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500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자서전 '동행'에 대해 강연한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의 명인·명장들이 출연해 김 전 대통령의



막시에 참석해 올해 신설된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을 수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은 인권신장, 환경보존 및 세계의 평화공헌에 기여한 작품과 감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

해 수상자는 이란의 인권 영화감독인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선정됐다. 이 이사장은 이밖에 26일 광주 아동보육시설인 신애원을 방문해 아동들과 교사들을 격려하고, 27일에는 광주여성재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현관식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 23일 목포를 방문해 '광주·전남지역 전도대회'에 참석해 신앙간증을 했고 24일과 25일에는 완도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일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직빌딩 501

서구 세하동 일반주거지역

서구 세하동 동화마을 부근.전. 2차선 도로접합 1,035㎡(313평)(도로 77평포함).매매가 4억 2000만원. 식당. 사무실.기타.적합

건물매매(용봉지구)

- 북구 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367㎡(111평).3층. 건물3층 598.8㎡(181평) 매매가4억9000만원. 보증금6,000만원 월330만원.
- 북구 오치동 오치공영앞 대로변 대지298㎡(90평). 건물5층875㎡(265평). 매매가 9억9000만원. 보증금8200만원 월620만원. 상권양호.

소태동 잠점지매매.

- 동구 소태동 대아아파트 부근. 잠점지.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거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완도 독섬 매매.

-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 화순군 도곡면 효신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합. 매매가 3.3㎡당 16만원.

010-3616-8698. 062-233-2222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학원·병원·한의원·고급식당·독서실·PC방·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이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도시형 주택전문)

- 수익성상가
- 안전한재건축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건축·분양 임대 (검토부터 기획마감까지 원스톱)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해드립니다.

★원룸 상가 기타 건축할수 있는 토지

항시 구합니다★

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컨설팅(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당)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물112평
- 김장기2의 6천만 최저가 9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상가 대지66평 건물145평
- 김장기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생충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물147평
- 김장기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물 28평
- 김장기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물155평
- 김장기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물 76평
-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도(도시가스,리모델링)
-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개)

토지매매

- 무안군 해례면 천정리 임야 1200평 진일로인용
-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1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